

“2026 전북교육, 한국 교육 중심으로”

전북교육청, 시무식 열고 새해 힘찬 출발 한목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6년 새해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직원들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전북교육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은 학생과 교직원 새해 맞이 영상 시청, 떡 케이크 커팅식, 문화 공연, 전일 공무원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올해의 사자상어로 선정된 ‘마부정제(馬夫正節)’를 언급하며 “달리는 말은 말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에 한층 정성을 다하지고 당부했다.

유 권한대행은 6일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중심으로 AI교육과 역사교육 등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6년 새해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북교육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수소에너지고-한솔케미칼, 혁신 취업모델 구축

채용 후보자 선발 장학금 지원

실제 채용 연결 시스템 제시

교육부 지정 제2기 협약형 특성화고인 수소에너지고등학교(교장 송현진)가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혁신적인 직업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학교 교육과정에 직접 녹여내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이끄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말 수소에너지고 시청각실에서는 한솔케미칼 전주공장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한 ‘채용 후보자(장학생) 선발 제도 설명회’가 개최됐다. 설명회는 한솔케미칼의 실제 채용 수요를 학교 커리큘럼과 일치시키는 ‘취업 연계형 교육 모델’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리였다.

한솔케미칼이 제시한 제도는 ‘채용 연계형 장학생’이라는 파격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우선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학생 6명을 채용 후보자로 선발해 재학 기간 동안 매년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계 교육을 제공한다. 이후 졸업 무렵 최종 2명을 선발해 채용을 확정 짓는 단계형 시스템이다.



수소에너지고등학교가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혁신적인 직업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채용 후보자 선발 제도 설명회.

특히 한솔케미칼은 선발 과정에서 성적과 같은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근속 의지, 품행, 성장 가능성 등 정성적인 요소를 비중 있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학교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태도와 역량을 재학 중에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밀착 협력은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의 가교 역할과 전주고용노동지청 박종관 근로감독관, 완주군청 유원욱 산업경제국장 등 관계기관의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 결과다.

한솔케미칼 관계자들까지 합세한 이번 사례는 학교와 기업,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이 현장에서 이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처럼 견고한 거버넌스는 우수 인재가 지역 내

에 안착할 수 있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협력체계의 실효성은 이미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 한솔케미칼 외에도 앞서 진행된 협약 기업 LS엘트론과 일진하이솔루스의 채용 전형에서 졸업예정자 각각 2명이 최종 합격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이는 협약형 특성화고가 구축한 취업 연계 시스템이 단순한 계획을 넘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동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송현진 교장은 “협약형 특성화고의 취지를 현장에서 구체화한 실질적인 이행 모델”이라며 “한솔케미칼과의 성공적인 협력을 발판 삼아 지역 내 다양한 우수 기업으로 취업 연계 모델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진로를, 지역 산업계에는 맞춤형 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대 78년 역사, 기록으로 만나다

전북대, 내달 28일까지 역사 특별전

전북대학교 기록·역사관(관장 이정환)이 개교 이후 78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전대역사 특별전 ‘전북대학교, 시간의 길을 걸다’를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북대학교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이 보유한 기록물과 역사자료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열린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 기록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기록·역사관이 소장한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존기록물과 역사자료 중 선별해 구성된 전대역사 특별전과 함께, 사진과 고문서를 포함한 약 6만면 분량의 기록물 디지털화 작업, 이를 활용한 전시 디자인 및 콘텐츠 제작 등으로 진행된다.

1부 학문의 뿌리를 내리다에서는 전북대의 모태인 이리농과대학과 상과대학 군산캠퍼스 시절을 비롯해 최초의 개교기념식, 전북대 설치인가 기념촬영 등 대학 태동기의 역사적 순간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2부 캠퍼스 변화와 통합의 시



간에서는 캠퍼스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들이 공개된다. 2007년 익산대학과의 통합 당시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고창·정읍·완주·군산·남원 등 지역 곳곳으로 확장된 전북대의 거대한 캠퍼스 네트워크를 조망한다.

3부에서는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전대인들의 일상과 열정을 담았다.

전시의 마지막 에피로그에서는 관람객이 기억하고 싶은 전북대의 모습을 메모카드에 남길 수 있는 참여형 공간도 운영된다.

아울러 전북대는 올 10월 옛 대학본부 건물(지상2층, 996㎡)에 ‘전북대 역사관’을 개관해 대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역사적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지역민 및 구성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우석대, 도내 일반대학 중 취업률 가장 높아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서 64.9% 노동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등 추진... 취업 지원 강화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취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둔화한 가운데서도 6년 연속 전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졸업생 1000명 이상)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우석대학교의 취업률은 64.9%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지역 일반대학 평균 취업률인 58.7%를 웃도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2024년 2월과 2023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취업 및 진학 현황을 분석했다. 전국적으로는 일반대학 취업률이 62.8%로 전년 대비 1.8% 하락하는 등 취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도 우석대학교는 전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취업률 1위를 유지하며, 지역 대학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취업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석대학교는 이번 성과가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본부 중심으로 한 취업 지원 체계 강화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과 청년일자리도약지원사업 등 신규로 추진하며, 졸업생 맞춤형 취업 지원과 지역 기업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박노준 총장은 “취업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생과 졸업생의 진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원주=염재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